

국제 장애여성 리더쉽포럼
(International Leadership Forum for Women with Disabilities)
참가 요약보고

지난 1995년 북경여성대회의 후속작업으로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좀더 구체화시키고 국제적인 교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1997년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 국제 장애여성 리더쉽포럼(International Leadership Forum for Women with Disabilities)에 82개국 614명의 여성장애인이 참가했습니다.

포럼은 각 영역별로 주제토론, workshop, special sessions 등으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포럼의 각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16일 개막식에서는 장애여성들의 힘과 교육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회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캐시 마티네즈(Cathy Martinez) 이 대회 의장의 환영사로 시작하여, 미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인 매드린 오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와 미국 보건복지 장관 도나 샬랄라(Donna Shalala) 및 남아공화국 국회의원 마리아 란토(Maria Rantho) 등이 기조연설을 했다. 이 중 인상적인 연설은 도나 샬랄라(Donna Shalala)가 미국의 매들사가 내놓은 휠체어를 탄 인형 바퀴들이 바깥드림하우스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을 장애인의 현실로 비교하고 여러면에서 특히, 태도, 정책, 정책입안자 등 기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고 이는 우리의 사고와 마음의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연설을 하여 박수를 받았다. 남아공화국 국회의원 마리아 란토(Maria Rantho)의 장애와 인종분리정책을 제거하는 운동에 대한 강렬한 기조연설로 아프리카지역 여성장애인은 물론 참가자 모두가 흥분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17일은 장애 소녀들과 여성들을 위한 교육 측면에서 요구되는 것들과 강력한 모델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발제는 미 교육부 장관 리처드 라일리(Richard Riley)와 특수 교육프로그램 담당 차관보인 주디 휴만이 교육기회의 차별철폐와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상기시키고자 했고, 미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인 마사 브리스토(Marca Bristo), 스웨덴 장애인국제자원조기구(SHIA)의 브리기타 앤더슨, 일본의 아시아장애기구 창설자인 나카니시 유카고 등이 각 나라별 상황을 발제했다.

18일은 건강과 가족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되었으며, 발제는 뉴질랜드 세계정신의학 수요자협회 창설자인 메리 오해이건(Mary O'Hagan)과 나카라과의 레즈비아 솔라르자노 박사 및 러시아의 류프보프 트라피모프나 포포바 장애인 전문의사, 미국의 색스톤(Marsha Saxton) 등이 여성건강, 미국의 인간계놈연구, 각국의 상황에 대해 연설했다.

19일은 고용과 관련해 토론되었는데 미국사회보장국 장애담당 수잔다니엘(Susan Daniels)이 미국의 장애인이 70%가 직업이 없다는 점과 정성적인 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에 대한 연설을 했으며, 뉴질랜드의 폴린 윈터스(Pauline Winters)와 국제노동기구 예비메셀(Evy Messell)은 고용기회 개방에 따른 국제사회의 어려움에 대해 연설했다.

20일은 의사소통과 기술에 관한 토론과 비디오 보기가 진행되었으며 이어, 폐막식이 열려 성명서를 낭독하고 감사패를 전달하며 각국의 여성장애인 포럼에서 느낀 소감을 발표하고 함께 결의를 다졌다.

이러한 기조강연을 마친뒤에는 각 주제별 workshop이 6개부분으로 열렸으며, 각

workshop에서는 각국의 사례발표가 중심이 되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결의문을 작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한 각 지역별, 조직별, 특별사안별로 special sessions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한국참가단은 Asia/Pacific Caucus;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성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 - 에 참여하여 올 9월에서 열리는 ESCAP국제회의, RI회의 등 국제회의를 소개하고 참여방법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하였다.

또한 저녁 프로그램 중 특별히 17일에 각 나라 참가자들의 재능을 보여주는 텔런트쇼와 19일 작별파티가 있었다.

17일에 한국팀은 한복을 입고 출연해 '아리랑'과 '함께가자 우리 이길'을 부르고, 신영순(자원활동자)씨의 부채춤을 추어 각국 참가자들에게 눈길을 끌었다. 또, 이 쇼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팀은 브라질의 무용공연이었는데 이 무용은 휠체어를 탄 여성장애인인과 비장애인 남녀가 출연해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무용으로 표현했다. 전혀 어색하지 않게 춤을 추는 모습이 우리에게 장애인문화개발의 필요성을 느낀 계기가 되었다.

19일 작별파티는 댄스파티로 진행되어 다양한 춤의 방식으로 흥분을 느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정부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아 박영희('빛장을 여는 사람들' 소속. 참가단 단장)씨를 비롯해 실무자 1인(배복주), '빛장을 여는 사람들' 5명(윤미경, 정영란, 정형란, 김미연, 김광이), '한국맹인여성회' 1인(이낙영), '작은예수회' 2인(윤석인, 박정자), 통역 및 자원활동자 4명(신영순, 김선옥, 이은경, 김민지) 등 총14명이 참가하였다.

이상으로 간단한 보고는 마치고, 이 후에 보고서가 나오면 회원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일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데로 보고하겠습니다.

빛장을 여는 사람들 포럼참가자 일동